

이회명과 근대 제주불교

이경순*

• 목 차 •

I. 머리말

II. 이회명의 생애와 활동

III. 이회명의 제주 입도와 제주불교협회 창립

IV. 이회명의 제주 포교와 그 영향

V. 맺음말

부록 : 이회명 연보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

© 『大覺思想』 제35집 (2021년 6월), pp.191-217.

한글요약

李晦明(1866~1951)은 근대 불교교단의 중진으로서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이 필요한 인물이지만 지금까지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그는 건봉사 출신 승려로서 1900년대 이미 중앙 교단에서 활약했으며, 1920년대에는 본산 주지를 역임할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었다. 특히 1900년대 초부터 1920년대까지 포교사로서 큰 명성을 얻었으며, 한반도 남단과 북단 지역의 불교계를 일신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이 글에서는 이회명의 행적 가운데, 1920년대 제주에서의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회명은 조선불교의 전통적 수행과 근대적 포교방법을 제주도에 소개하여 1920년대 제주불교계에 큰 자극을 주었다. 1924년의 제주 관음사의 중창 낙성식 개최, 제주도 순회 포교, 계단의 설치, 수행단체의 조직 등 제주도의 포교 방식, 불교 의례의 관행에 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제주불교협회 창립 등을 통해 제주불교의 사회적 위상과 권위를 제고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으며 그가 저술한 다수의 기문은 근대 제주불교 역사인식의 중요한 토대를 제공하였다.

이회명은 개화된 근대 불교인으로서, 지방의 불교교세를 진흥시킨 포교사로서, 불교사와 사찰의 역사에 정통한 승려이자 문장가로서 주목되어야 한다. 앞으로 심도 있는 입체적 탐구가 필요한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주제어

이회명, 제주불교협회, 근대 제주불교, 제주불교사, 회명문집, 인봉려관

I. 머리말

이회명은 근대 불교사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인물이다. 하지만 이회명은 건봉사 출신 승려로서 1900년대 이미 중앙 교단에서 활약했으며, 1920년대에는 본산 주지를 역임할 정도로 영향력을 지닌 인물이었다. 특히 1900년대 초부터 1920년대까지 포교사로서 큰 명성을 얻었으며, 한반도 남단과 북단 지역의 불교계를 일신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이회명의 문집인 『晦明文集』에는 그가 찬술한 다수의 사적기와 승려비문이 실려 있는데, 이것은 佛敎史家, 文章家로서의 면모를 보여준다.

이 글에서는 근대 불교계에서 이회명의 활약 가운데, 1920년대 제주에서의 활동을 주목하고자 한다. 근대 제주불교에 대한 연구는 2000년대 이후 활발히 진행되어 많은 성과가 축적되었다.¹⁾ 법정사 항일운동에 대한 집중적 조명이 이루어졌으며²⁾, 제주를 대표하는 사찰인 관음사를 창건한 安蓬廬觀, 安道月을 비롯하여 金錫允, 房東華 등 근대 제주불교인들도 주목받았다.³⁾ 이렇게 근대 제주불교사의 전개 과정과 법정사 항일운동, 근대 제주불교인들의 행적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주 근대불교에 대해 규명되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⁴⁾

1) 근대 제주불교사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얻기 위해 참고한 자료집과 논문은 다음과 같다. 제주불교사연구회, 『근대제주불교사 자료집』, 제주불교사연구회, 2002.; 오성, 「근대 제주불교의 태동과 관음사 창건」, 『대각사상』 9, 2006.; 김광식, 「제주 근대불교의 전개와 성격」, 『민족불교의 이상과 현실』, 도피안사, 200.; 김광식, 「법정사 항일운동의 연구, 회고와 전망」, 『정토학연구』 11, 2008.; 한금순, 『한국근대 제주불교사』, 탐라문화연구원, 2013.

2) 김광식, 「법정사 항일운동의 재인식」,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5, 2005.; 김광식, 「법정사 항일운동의 연구, 회고와 전망」, 『정토학연구』 11, 2008.; 김광식, 「법정사 항일운동의 근대불교민족운동사에서의 위상」, 『역사와 교육』 27, 2018.; 한금순,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 서귀포신문, 2018.; 김광식, 「제주근대불교의 민족운동 재인식」, 『불교학보』 89, 2019.

3) 혜진, 「봉려관스님과 제주불교의 중흥」, 『한국 비구니의 수행과 삶』, 예문서원, 2007.; 한금순, 「안봉려관과 근대 제주불교의 중흥」, 『정토학연구』 14, 2010.; 한금순, 「승려 김석운을 통해 보는 근대 제주인의 사상적 섭렵」, 『대각사상』 19, 2013.; 임혜봉, 『벽담 방동화 평전』, 열림문화, 2014.; 한금순, 「안도월과 근대 제주불교」, 『대각사상』 26, 2016.; 봉려관선양회, 『해월당 봉려관스님』, 열림문화, 2017.

4) 김광식은 제주 근대불교의 민족운동과 관련하여 앞으로 주목해야 될 과제들을 제

그 중에 하나가 1920년대 이회명의 활동과 역할에 관한 것이다. 그가 1920년대 제주에서 펼친 포교활동은 당시 불교계 안팎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다. 제주의 대표적 승려들이 이회명의 문도임을 자처하게 된 사실은 그의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더욱이 1924년에 이회명이 주도한 제주불교협회의 창립은 근대 제주불교사에서 중대한 사건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회명이란 인물과 그의 행적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었다.⁵⁾ 이 글에서는 이회명의 생애와 1920년대 이회명의 제주에서의 활동을 살펴봄으로서 근대 불교사에서 잊혔던 이회명이라는 인물의 한 단면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II. 이회명의 생애와 활동

이회명의 행적과 남긴 글들은 『晦明文集』을 통해 상세히 살필 수 있다.⁶⁾ 이회명은 1866년 경기도 양주군에서 부친 李寬錫, 모친 水原 白氏 사이의 독자로 출생하였다. 어렸을 때 이름은 牛庚이었다. 4세 때 모친이 사망하고 부친이 외지로 떠나게 되자 祖母의 품에서 자라게 되었다. 5세 때 외지로 나갔던 부친이 실종되고, 9세 때 조모마저 별세하자 伯父에게 의탁하였다. 이 불우한 유년시절, 우경에게 조모의 보살핌과 가르침이 큰 의지가 되었던 것 같다. 조모는 상당한 학

시한 바 있다. 그것은 제주 항일운동 주역들의 은사인 박만하 라는 인물과 제주 불교의 상관성, 관음사 포교소 설치 허가에 대한 평가, 안봉려관의 산천단 재건의 의미, 선학원 제주분원인 월정사의 성격, 제주항일 단과방송 사건의 실체 등이다. 김광식, 「제주 근대불교의 민족운동 재인식」, 『불교학보』 89, 2019, pp.167-182.

- 5) 이회명에 대한 연구로는 친일승려로 이회명을 평가한 임혜봉의 저술(임혜봉, 『친일 승려 108인』, 청년사, 2005)과 가사작가로서 이회명을 조명한 김종진의 논문이 있다. (김종진, 「근대 불교가사 창작의 한 흐름-회명 일승의 가사자료 소개를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43, 2012.)
- 6) 권태연 편역, 『晦明文集』, 여래, 1991. 특히 이 책의 제15장 「禪師의 履歷」에는 이회명의 행적이 연대별로 정리가 되어 있으며 이와 별도로 年譜가 작성되어 있다. 「선사의 이력」은, 1940년대 함경북도 경성군 觀海寺에서 안진호가 이회명의 구술 및 남긴 글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그런데 이 「선사의 이력」과 뒷부분의 「晦明日昇 禪師 年譜」는 대체로 일치하지만 곳곳에서 연대 또는 내용상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아마도 안진호가 작성한 「선사의 이력」을 바탕으로 年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생긴 착오나 새로운 자료에서 추가된 내용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안진호가 작성한 「선사의 이력」이 年譜보다 신빙성 있는 자료라고 생각된다.

식을 지니고 있었던 분으로, 우경이 6세가 되자 한학을 가르치기 시작하여 9세 때는 논어, 맹자를 가르쳤다. 또한 『晦明文集』의 기록에 따르면 대원군의 집정 시부터 조모가 운현궁의 府大夫人과 친교가 있어 우경을 데리고 왕래를 했으며, 조모가 돌아간 이후에도 우경은 운현대감에게 귀여움을 받으며 사숙했다고 한다.⁷⁾

우경은 11세 때인 1876년, 세상을 떠난 조모와 친분이 두터웠던 智順 비구니의 손에 이끌려 양주군 학림암 寶河禪師에게 출가하였다. 이후 4년 동안 서울 근교를 돌아다니며 은사를 시봉하다가 1883년 건봉사에 가서 이듬해 荷隱 列柯 律師에게 비구계와 보살계를 받게 되었다. 1884년 은사인 보하당이 입적 후, 1893년 28세까지 본격적인 강원공부를 하게 되었다. 건봉사의 晦光師兄, 震河강백, 신계사 大應老師, 명주사 一峰講師 등의 가르침을 받고 대교과를 졸업하였다.

1900년대에 들어서부터 이회명은 중앙교단에서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晦明日昇 禪師 年譜』에는 1902년 1월 동대문밖 세워진 원흥사의 서무로 피임되어 2년간 활동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⁸⁾ 원흥사는 그간 방기해오던 불교에 대한 관리를 피하고자 대한제국정부가 창건한 사찰이었다. 이회명은 원흥사의 창건이 후부터 직책을 맡았다. 원흥사내에 1902년 4월 전국 사찰과 승려를 관할하는 기구인 寺社管理署가 세워지고, 같은 해 7월 國內寺刹現行細則 36개조가 발표되어 원흥사를 大法山으로, 각 지방의 16개 수사찰을 中法山으로 하고 각각의 승직을 설치하게 되었다. 이것은 국가주도로 전국사찰의 행정적 관리체계를 구축하려 한 것이었다.

이회명은 원흥사가 창건되기 몇 해 전인 1897년, 고종의 妃인 嚴妃의 명을 받아 건봉사 鳳巖庵 準提菩薩 앞에서 백일기도를 했으며, 엄비가 왕세자를 낳게 되자 큰 상을 받은 적이 있었다.⁹⁾ 이것이 왕실과 각별한 친교를 맺을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듯하다. 왕실의 관심은 1904년 경성 봉원사에서 三冬 설교사로서 활약하던 중 설교를 잘한다는 칭찬이 궤내에까지 알려져 회명이 왕실의 하사품을 받게 된 일에서도 알 수 있다.¹⁰⁾ 이러한 전력은 이후 포교사로서 명성을 쌓

7) 「선사의 이력」, 『晦明文集』, pp.292-293.

8) 「회명일승 선사 연보」, 위의 책, p.374.

9) 「선사의 이력」, 위의 책, pp.342-343.

10) 「선사의 이력」, 위의 책, pp.346-347.

아갈 때 큰 후광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이회명이 원흥사 창건 직후부터 관여한 것은, 그것이 왕실과의 친교에서 출발했을지 모르겠지만, 새롭게 움트는 조선불교계의 변화에 대응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그것은 1907년 불교연구회 내무부장 피임, 1908년 발표된 圓宗의 佛敎宗務局趣旨書 발기인 중에 13도의 사찰의 대표로서 포함된 사실로서¹¹⁾ 증명된다.

불교연구회는 원흥사에 세워졌던 관리서가 폐지(1904)된 후 불교계의 자구적 노력으로 건설된, 불교계의 신학문 교육을 위한 조직이었다. 1906년 불교연구회는 화계사의 홍월초와 봉원사 이보담이 주축이 되어 원흥사에 조직되었는데 불교계 최초의 근대학교인 명진학교가 바로 이 불교연구회의 주도로 개교하였다. 불교계의 근대교육을 시도한 불교연구회에 간부로서 이회명이 참여하였다는 것은 이회명 자신이 조선불교의 현실과 문명개화에 대한 자각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원종 불교종무국취지서 발기인에 이름을 남긴 것 역시 당시 불교계의 시대적 과제였던 교단건설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였음을 드러낸다. 이러한 중앙불교계의 움직임에 적극적 활동을 보인 것은 그의 나이 30대 후반부터로 보인다. 원종의 불교종무국 취지서 발기인 명단에 든 것은 그가 43세 때의 일이니 장년으로서 중앙 불교계의 책임을 맡을만한 시기였다.

그렇다면 이회명이 중앙불교계에서 활약을 하도록 이끈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아마도 새로운 근대 문물을 빠르게 흡수한 건봉사의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태된 개화사상의 영향이었을 가능성이 크다.¹²⁾ 더불어 원종의 종정 李晦光의 역할로 보인다. 이회명은 당시 명성이 높은 강백으로서 이회명의 師兄이었다. 회명은 건봉사 普眼講院에서 회광으로부터 사교과 가운데 능엄경과 기신론, 화엄경 三賢을 공부한 바 있었다. 이러한 인연으로 이회명은 중앙불교계에

11) 『大韓每日申報』, 『皇城新聞』 1908. 3. 17.

12) 건봉사는 관동지역을 대표하는 사찰로서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불교 근대화 사업을 앞장서 펼쳐 나간 대본산이었다. 1906년 근대적 교육기관으로서 봉명학교를 설립했으며 다수의 경성 및 일본 유학생을 배출했다. 만해는 백담사로 출가했는데 백담사는 건봉사의 말사였다. 만해가 명진학교 입학할 때도 건봉사의 추천을 받았다. 봉명학교에서는 만해의 강연을 유치하여 민족의식 고양에 힘썼고 만해의 영향을 받은 인재들을 배출했다. 이경순, 「건봉사 사격의 어제와 오늘」, 『금강산 건봉사의 역사와 문화』, 2011, 인복스, pp.31-39.

등장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1910년 경성 사대문 안에 각황사가 창건되자 이회명은 각황사에서 본격적으로 포교활동을 시작하여 포교사로서 명성이 더욱 높아졌다. 훗날의 평가에 의하면 그의 설교가 매우 뛰어나 일본인까지 설법을 칭찬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회명은 뛰어난 언변과 함께 대중을 끌어 모으는 남다른 수완도 겸비했던 것이다.

각황사를 중심으로 포교사로서의 눈부신 활동을 하면서 49세인 1914년에는 드디어 대본산 영명사 주지로 임명되었다. 그리고 1915년에는 30본산 연합포교당 설교사로 피임되고 30본산 연합사무소 監査員의 직책을 맡았다. 같은 해 12월에는 영명사 주지를 사임하고 그 자리에 장안사의 姜龍船 회상을 추천하고 서울로 돌아왔다. 이렇게 본사 주지 자리를 사양한 일은 이후 1918년, 1922년 건봉사 주지에 추대되었으나 가지 않은 예에서도 찾을 수 있다.

조선승려 中 師처럼 법을 위해 충실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행동은 참된 승려다운 곳이 있다. 그 외 승려 등의 주지 경쟁이나 그 밖의 속사에 혈안 됨이 없이 오직 佛法弘通을 위해 분주하였다. 北은 咸北의 羅南으로부터 남으로는 전남의 제주에 이르기까지 진도에 몸 바쳤다. … 이회명사는 본산의 주지 등을 권하는 일이 있으면 늘 대답하기를 자기는 삼계의 대도사가 되지 못하면 못하였지 本山の 주지 따위는 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며 사절하였다.¹³⁾

위의 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회명은 다른 승려들처럼 본사주지 경쟁에 혈안이 되기보다 주지를 사양하면서 포교사로서의 임무에 충실하고자 했다.¹⁴⁾

한편, 이회명의 활동에서는 일본불교에 대한 우호적 태도도 엿볼 수 있다. 이회명이 41세 때인 1906년 7월 일본 曹洞宗계열 사찰에서 계를 받았던 사실에서

13) 「大覺院과 이회명 회상」, 『朝鮮佛敎』 32호, 1926. 12.

14) 하지만 이회명의 친일행적을 주목한 임혜봉은, 이회명이 건봉사 주지를 사양한 것은 ‘사범위반과 음모가 발각되어 파문을 일으켰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회명이 건봉사 재적승으로 승적을 가지고 있다가 영명사 주지가 되면서 승적을 옮겼고 그후 봉은사로 다시 승적을 옮긴 상태에서 건봉사 주지로 당선된 것은 사범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음모의 발각’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임혜봉, 「이회명, 메이지의 왕비 쇼켄의 붓도식을 거행한 포교사」, 『친일승려 108인』, 청년사, 2005, pp.35-41.

도 드러난다. 당시 조선불교계는 일본사찰에 관리청원을 하고, 조선승려가 일본에 가서 계를 받는 일이 드물지 않게 일어나고 있었다. 그것은 의병전쟁이 한창이던 당시 일본군의 공격으로부터 사찰을 보호하기 위한 자구책이었음과 동시에 일본불교에 대한 호의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한 이회명의 성향은 1920년대 朝鮮佛敎大會 설교사로서 활동한 사실에서도 드러난다. 조선불교대회는 일제의 친일과 육성책에 힘입어 1920년 발족한 단체로서 1925년에는 朝鮮佛敎團으로 확대 개편된 단체이다. 이 단체는 조선과 일본의 재가 불교신도들로 조직되었는데 당시 조선과 일본의 불교계 거물들이 두루 망라되어 있었다.¹⁵⁾ 이러한 조선불교대회라는 조직 경험은 이후 이회명이 조직한 지역 불교단체들의 구성원 성격과 활동에 그대로 투영되었다.

1920년을 기점으로 이회명은 전국을 누비는 포교활동에 전념하게 되었다. 더욱이 그 이전 경성근교와 건봉사를 중심으로 하였던 포교영역이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조선불교에 있어서는 오지와 다름없는 지역에 대한 포교가 이어지게 된다. 1920년 1월 청진항에 도착해서 기차로 함경북도 會寧禪寺에 가서 설법한 일이나, 1921년 제주도에 가서 설법한 일은 그 출발이 될 만하다.

1920년대 본산주지로서 활동이나 중앙교단내의 역할보다 지방 포교사를 자임하고 나서게 된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그의 師兄이었던 이회광의 몰락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이회광은 1908년 근대불교 최초의 교단인 圓宗의 종정을 역임한 이래(1908-1912) 불교계의 최고실력자로 군림했던 인물이었다. 그는 사찰령 반포이후에도 삼십본산연합사무소의 전신인 三十本山住持會議院의 院長을 역임하면서도 교단내 주도권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회광은 1910년대 중반부터 강대련과 세력 경쟁을 하다가, 1920년 조선불교를 일본 臨濟宗 妙心寺派에 부속시키려 했던 사건으로 완전히 교단내에서 영향력을 잃게 되었다. 이회광의 몰락은 같은 건봉사 출신이면서 사형사제간으로서 함께 중앙교단에서 활동하던 이회명에게 직간접적 타격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요인으로 이회명이 중앙교단에서 멀어지게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회명이 대본산 주지를 마다하며 포교사로서 살아간 것은 무엇보다 포교사로서의 뛰어난 자질과 능력, 사명감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그가 제주도를 비롯한 오지와 가까운 지역에 대한 포교를 개척한 것, 그리고 각 지역에 대한 순회

15) 김순석, 「朝鮮佛敎團 研究(1920-1930)」, 『한국독립운동사연구』 9, 1995, p.125.

포교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신행단체 조직에 관여한 것은¹⁶⁾ 포교에 대한 남다른 시각을 지니고 그것을 실천해 갔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정신은 그가 말년에 남긴 시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自吟(스스로 읊음)
 칠십하고 팔세인 나의 평생 일이
 아침은 서쪽에서 먹고 저녁에 남쪽에서 자면서
 두루 전국을 다니면서
 분향하고 세발함은 좋은 인연 맺으려 함일세.¹⁷⁾

이회명의 제주도에서의 활동은 1921년, 1922년 두 차례 방문에 이어 1924년에서 1927년까지 이어졌다. 그는 부산, 목포 등 한반도 남부지역의 포교활동에 이어 1929년에는 두만강 건너 용정을 비롯하여 북청, 청진, 원산, 강계 등 북쪽 지방의 포교에 전력하게 된다. 이러한 정력적 활동은 주로 1920년대에 이루어졌다.

1926년 花甲을 맞은 이회명은 10월 9일 각황교당에서 제자 鄭贊鍾에게 범택을 상속하고 指月이라는 호를 주었다.¹⁸⁾ 60대 중반을 넘어선 1930년대에는 전국에 인연 있는 각 사찰의 사적기, 상량문, 공덕기, 발원문을 찬술하는 활동을 하였다.

그리고 1946년 또 다시 제주도에 찾아가 보살계법회를 집전하고 관음사에 머물렀다. 그 5년 후 1951년 12월 22일 이회명은 세수 86세, 법납 75세로, 전북 임실군 삼계면 大圓庵에서 생애를 마감하였다.

III. 이회명의 제주 입도와 제주불교협회 창립

이회명이 제주도에 처음 발을 디딘 것은 1921년의 일이다. 1921년 9월 29일 제주도에 도착하여 法華寺에서 동안거 설법을 하였다. 10월 25일 목포로 나왔다

16) 이회명이 관여한 주요 불교단체는 다음과 같다. 佛敎忠孝婦人會 설립(진주, 1922), 關北佛敎 青年會, 婦人會, 少年會 설립(1923), 濟州佛敎協會 조직(1924), 濟州佛敎 婦人會 조직(1925), 濟州佛敎少女團 조직(1926), 群山港佛敎協會 조직(1934)

17) 『晦明文集』, p.263.

18) 『佛敎』 29호, 1926. 11.

는 기록이 있는 것을 보아 제주도에 머문 기간이 25일 안팎이었을 것이다. 이때 이회명은 법화사를 창건한 안봉려관과 안도월의 요청에 의해 제주를 찾았던 것으로 보인다. 안도월과 안봉려관은 1908년 관음사를 창건하고 근대 제주불교의 기틀을 마련한 승려였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제주불교는 17세기이후 폐불에 가까운 극심한 침체기를 겪다가 1908년 관음사의 창건으로 일대 전기를 맞았다. 이후 1918년 법정사 항일운동은 제주불교의 저력과 민족의식을 폭발시킨 사건이었다. 그러나 법정사 항일운동이후 일제의 탄압과 강화된 통제로 불교의 활동은 크게 위축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20년대 안봉려관과 안도월은 제주도내 불교활동의 재개를 꾀하면서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했던 것이다. 제주도내 승려들은 항일운동가답으로 일제의 감시가 심해져 적극적 활동이 어려웠다. 이러한 불교세의 위축은 1918년에서 1924년까지 총독부의 사찰설립신고가 된 것이 백양사 포교소 두 곳에 불과했던 것으로도 짐작할 수 있다.¹⁹⁾ 이러한 상황에서 안봉려관과 안도월 등이 찾은 위기 타개책의 하나는, 중앙교단에서 인정하는 위상과 포교사로서 전국적 명성을 두루 갖춘 이회명을 제주에 소개하는 일이었다.

이회명이 두 번째로 제주도에 이른 것은 1922년 1월 20일의 일이다. 연보에는 제주도에서 설교를 했다는 사실만 있을 뿐 자세한 기록은 찾을 수 없다. 2월 14일 경성에서 열린 佛敎大會 주최 불교강연회에 참여한 것으로 보아 제주도에 머문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던 듯하다.

이회명의 제주도에서의 활약이 본격화되는 것은 1924년의 일이다. 제주 관음사의 불사에 참여해 달라는 청을 받고, 당시 최고의 畫師로서 이름을 얻고 있던 금강산의 文古山, 朴寫松, 계룡산의 金普應 3인을 먼저 제주도에 보내고 얼마 후 佛事의 증단에 참석하였으며 초과일 관음사 중창 낙성식을 보게 되었다. 이때 관음사에서 열린 灌佛會에는 경성의 이회광, 본산 대흥사 주지대리 甘船月, 나주 다보사 주지 金錦潭이 참석하고 신도들이 운집하여 전에 볼 수 없던 성황을 이루었다.²⁰⁾ 이때 안도월과 吳漢秀(利化)²¹⁾는 건당하여 각각 이회명의 法嗣, 法孫

19) 한금순, 『근대 제주불교사 연구』,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pp.104-111.

20) 『朝鮮佛敎』 1924년 7월 11일. 그런데 『每日申報』 6월 4일자 기사에서는 참석자가 조금 다르게 나와 있다. 이회광, 김금담에 대한 언급은 없고 朴映熙, 관음사 대표 卓升玉, 島司 대리인 加藤英造 등이 기록되고 당시 운집한 신도가 만 여명에 이른다고 되어 있다.

이 되었다.

1924년 초파일 관음사 중창 낙성식은 근대 제주불교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관음사를 제주불교의 중심으로 그 위상을 우뚝 세웠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또한 이 낙성식의 규모와 참석자의 수준은 전 조선 불교계의 이목을 끄는 것이었으며 제주불교가 중앙 불교계와 연결되어 있음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것이었다. 이때 제주불교의 주요 인물인 안도월과 오이화가 이회명의 문도가 되어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이회명은 제주불교인들이 중앙 불교계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 다리 역할을 한 것이다.

이후 이회명은 곧 경성으로 돌아갔다가, 같은 해 8월 8일 그를 데려가기 위해 경성까지 찾아 온 오이화와 함께 다시 제주로 향하였다. 같은 해 11월 이회명은 제주도 유지들과 함께 불교단체인 제주불교협회를 창립하였다.²²⁾ 이회명은 창립 취지를 다음과 같이 적었다.

오직 우리 瀛洲 一帶는 이러한 모임이 없었음은 유감이었습니다. 원래 耽羅國은 성스러운 곳이어서 오백개소의 절이 있었던 곳입니다만 근자로 오는 수 백 년 동안 그 절들이 대개 연기와 티끌에 매몰되고 말았기에 二十萬이 넘는 제주도 사람들의 精神的 支柱가 되었던 절과 탑은 각자의 머릿속에만 아득히 남아 있을 뿐이고 대개는 바람에 넘어지고 비에 씻겨 없어졌습니다.

現수는 세계가 모두 불교의 모임을 創設하여서 교리를 연구하고 宣布하는데 힘쓰고 있거늘 어찌 우리 제주도만이 불교를 일으킬 마음을 내지 않고 잠자코 지내겠습니까? 이러한 뜻에서 제주도 신령스러운 섬 전체를 통일하는 제주불교협회를 조직했으니²³⁾

창립 취지에서 밝힌 ‘제주도 신령스런 섬 전체를 통일’ 한다는 의미는 개별적이고 분산된 제주불교를 통일하여 활동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당

21) 범명 漢秀. 당호 利化. 그는 안도월의 恩法을 겸한 首弟子로서 관음사 2세 주지가 된 인물로서 신사 국상현이 범당을 다시 세울 때 자진하여 일을 맡았다. (『濟州漢孛山觀音寺法堂重建上樑文』, 『晦明文集』, p.88-91.)

22) 제주불교협회에 대한 상세한 소개와 분석은 한금순의 논문을 참조할 수 있다. 한금순, 『근대 제주불교사 연구』,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23) 『濟州佛敎協會趣旨書』, 『晦明文集』, pp.116-117.

시 제주도에는 본산이 설치되지 않은 채 육지 본산들의 포교소라는 명목으로 사찰 설립 허가가 이루어졌다. 제주도의 대표적 사찰인 관음사조차 대흥사 포교소라는 이름으로 설립 신고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제주의 각 사찰이 각 본산의 포교소로 존재하여 외지에 있는 본산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제주불교가 주체적이고 통일된 활동을 벌이는 데 제약이 되었다. 제주불교협회는 불교사업의 통일을 기획하는 제주불교인들의 요구가 수용된 결과일 수 있었다.

이러한 제주불교의 통일적 조직은 제주도 통치를 담당한 일제 당국의 이해와도 맞아떨어졌을 것이다. 당시 위계적, 행정적으로 조직되지 못했던 제주불교는 일제의 통제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없는 취약한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불교대회의 이회명의 來島와 제주불교협회의 창립은 일제 당국자의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불교계에 대한 효율적 감독, 관리를 위해서 식민지배에 순응하면서 카리스마를 갖춘 지도자와 그에 맞는 조직이 유용하였을 것은 분명하다. 일제 당국은 불교 단체를 활용한 민중의 사상통제와 정신순화를 기획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제주불교협회는 조직의 목적을 ‘불교진흥’, ‘심신수양’, ‘지방문화 발전’이라고 규정하였다.²⁴⁾ 이러한 창립취지는 결국 불교세에 있어서 타지보다 뒤떨어진 제주도의 불교를 부흥시킨다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부흥은 신도의 증가와 같은 교세의 확장뿐 아니라 ‘교리연구와 선포’에서 나타나듯 불교신행 수준의 질적 향상도 포함된 의미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이후 제주불교협회가 제주사회에 새로운 불교신행의 모델을 제시하고 다채로운 활동을 펼친 점으로도 드러났다.

제주불교협회는 1924년 11월 17일 오후 7시 제주공립보통학교에서 창립식을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는 아래의 임원을 선출하였다.

24) 『東亞日報』 1924. 11. 30.

<표 1> 1924년 제주불교협회의 주요 임원

직 책	성 명	비 고
회장	이회명	조선불교대회 법사
부회장	김태민	의사
총무	양홍기	변호사, 도회의원
평의장	조광헌	
찬성부장	이윤희	제주 運送合資會社 대표
서무부장	문재창	
포교부장	안도월	제주 관음사 주지
성도부장	차승옥	제주 관음사 (신도?)대표
교육부장	강태현	
구제부장	봉려관	제주 관음사 창건주
顧問	前田善次	조선총독부 島司 겸 조선총독부 警視
	川源五郎	
	松田理八	의사
	森川萬藏	
	三根伊之十	주식회사 朝鮮殖産銀行 지배인
	김역빈	
	김종하	전라남도 대정군 군수 역임
포교사	이회명	
사회장	홍종시	제주금융조합장

제주불교협회의 주요 임원들을 살펴보면, 이회명을 중심으로 안도월, 안봉려관 등 당시 제주불교계의 대표 인사와 제주도의 최고 행정 책임자인 마에다 요시쓰구(前田善次) 島司를 비롯한 각계 유지들이 참여한 것을 알 수 있다.

한금순은 제주불교협회의 구성원을 분석하면서, 제주불교협회에 주요 간부로 참여한 승려는 4명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구성원이 일반인이었다고 밝혔다. 결국 제주불교협회는 온전한 불교단체라기보다는 일제가 주도하는 사회단체로서 제주 불교를 통해, 관리하기 위한 정책적 의도가 담긴 조직이라고 지적하였다.²⁵⁾

제주불교협회의 구성원의 성격과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제주불교협회의 활동이 제주 사회에서 불교의 위상을 제고하고 활동 범위를 확장하였다는 것은 인정해야 할 사실이다.

25) 한금순, 위의 논문, pp.139-159.

제주불교협회는 창립 후 불과 몇 개월 만에 큰 호응을 얻었다.

제주불교의 興隆

조선 불교대회 법사 이회명씨는 ... 봉려관, 안도월 양 화상의 의뢰로 지난 해 입도하여 공립보통학교에서 불교 취지를 강연하였는데 박수 갈채중에 관민 有志의 환영을 득하여 제주불교협회를 조직하고 설립 후 불과 4,5개월에 남녀 회원이 수천에 달하였으므로 當地 부호 송석돈씨는 임시포교소를 무상대여하고 전 판사 양흥기씨는 자기 사무실에서 협회 사무를 취급케하고 교무를 확장키 위하여 봉려관, 안도월 양 화상은 많은 경비를 들려 중심시가지에 포교당을 신축하고 4월 28일 佛居를 점하여 낙성식 및 불교협회 정기총회를 개최코자 목하 준비 중인데 교당의 구조는 실로 굉장하여 내선인 중 와서 본 자가 봉려관의 철두철미로 多大사업은 말할 필요가 없고 또 이회명 법사의 전도 확장함으로 종래 無佛國이던 제주가 有佛國의 신세계를 이루겠다고 예측하는 중이라더라.²⁶⁾

위의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이회명의 강연과 활동에 제주 관민은 열렬한 박수갈채와 환영의 태도를 보였다. 제주의 명망가와 유지들이 장소를 무상대여해주고 자기 사무실에서 협회사무를 취급하도록 하였다. 또한 봉려관과 안도월은 중심 시가지에 포교당을 건축하였는데 이 포교당의 건축을 위해서 다수의 신도들이 돈을 기부하였다.²⁷⁾ 이러한 제주불교협회 활동의 중심에는 이회명이 있었고 그의 활약은 ‘無佛國’의 제주도를 ‘有佛國’의 신세계로 만드는 수준이라고 평가되었던 것이다.

이회명의 활약에 힘입어 제주불교협회는 주요 임원을 포함한 간부 25명, 간사 42명에 이르렀고, 회원까지 포함한 조직의 규모는 더 놀라웠다. 1925년 제주불교협회가 세운 제주불교포교소의 ‘관세음보살개금불사 연화질’ 명단에는 ‘제주불교협회 회원 일동 일천칠백팔십삼인’이라는 기록이 나온다.²⁸⁾ 창립 1년 만에 제주의 불교인과 지역 유지들을 포함한 거대 조직으로 성장한 것이다.

제주불교협회는 제주불교부인회, 제주불교소녀단과 같은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을 하였다. 제주불교부인회는 1926년 1월 김여옥 등 25명의 발기로, 제주불교소녀단은 바로 다음 달인 2월 김일순 외 11명의 발기로 조직되었다. 이러한 조

26) 『濟州佛敎의 興隆』, 『每日申報』 1925. 4. 19.

27) 『寄贈者 諸氏』, 『每日申報』 1926. 1. 20.

28) 『관세음보살개금원문』, 제주 관음사 소장, 1925.

직의 취지서는 모두 이회명이 작성하였다.²⁹⁾

제주불교협회는 석단일, 성도일 등의 기념일에 칠일정진, 설법, 강연 등 행사를 개최하고, 제주불교부인회와 제주불교소녀단은 헌다식, 찬불창가, 무용, 연극 등을 선보여 행사의 규모와 내용을 풍성하고 격식 있게 만들었다.³⁰⁾ 또한 1927년 제주에 큰 수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용담리 바닷가에서 대규모 추도회를 개최하였다. 1930년에도 제주불교협회는 해상조난자들을 위한 수륙회를 주관하였다. 이 밖에도 1935년 중등과정의 강습소를 설립을 기획하였다.³¹⁾

창립 3년 후인 1927년에는 제주를 떠난 이회명을 대신하여 島司인 마에다가 제주불교협회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마에다가 1928년 제주도를 떠나면서 협회의 활동은 침체를 맞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은 제주불교협회가 창립직후 급격한 양적 성장과 단체 활동의 성과를 보였지만 외부의 명망가에 의존한 한계가 빛은 결과였다.

IV. 이회명의 제주 포교와 그 영향

이회명은 제주불교협회를 창립한 후에도 다양한 포교활동을 전개하였다. 1925년 5월에는 제주도내에서 순회포교를 하고 제주포교당에 계단을 설치하였는데 이때 수계자가 367인에 이르렀다.³²⁾ 이로써 제주도의 수많은 승려들과 재가자들이 회명의 문도를 자처하게 되었다.³³⁾ 제주불교 교세 확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성과였다. 그 후 이회명은 1926년 2월 안도월이 법화사를 중건하는데 證師로 참여하였다. 이회명은 1926년 이후 제주에 오래 머물지 않고 경성 등 타지에서의 활동을 이어갔다. 이회명이 타지에 머문 기간이 길어지자 많은 제주 불자들이 이회명의 來島를 바라게 되었다.

29) 『晦明文集』, pp.117-118.

30) 한금순, 위의 논문, pp.126-127.

31) 한금순, 위의 논문, pp.128-130.

32) 『晦明日昇禪師 年譜』, 『晦明文集』, p.376.

33) 『濟州門徒秩』, 『晦明文集』, p.389.

한 번 제주에 오시어 지혜의 눈을 열어 주시니
 한량없는 주심에는 문득 신비로움이 통하네
 … 그믐을 당하면 밝아짐이 진리인줄 알기에
 노사를 일러 깨달은 이라 하겠소. -仰山 高性住³⁴⁾

제주성내에 본위를 둔 제주불교협회에서는 이회명 대법사의 포교와 불교선전하에 삼천여명회원과 일반 전도민중의 渴仰을 受하는바 이월하순경에 師의 제자인 경성 대각원 주임 鄭指月법사가 입도시에 회명법사를 奉還하려 함으로 협회장 島司 前田 善次씨의 지휘를 隨하여 불교부인회, 불교소녀단을 并하여 삼단체가 회동 정식으로 교섭위원 육인을 정하여 在留를 청한 즉 사정상 부득이 연임을 승낙하였는데³⁵⁾

위의 기록을 보면 이회명이 제주불교신도들에게 미친 ‘감화’와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이후 이회명은 1927년 8월 제주에 큰 수해가 발생하자 제주에 돌아와 수륙천도재를 주도하기도 했다. 1927년 이후 이회명은 제주를 떠나 해방 후인 1946년까지 제주도를 다시 찾았다는 기록은 찾을 수 없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제주도와와의 인연은 지속되었다. 1937년 입적한 안도월의 비문을 짓고 1941년에는 관음사 법당의 상량문을 지었다. 1943년에는 안봉려관의 功德 碑銘을 작성했다.

濟州道에는 수 백 년 동안에 佛敎가 그림자까지 끊어진 때에 지난 戊申年 봄에 처음으로 觀音寺를 漢拏山 북쪽에 창건하니 비로소 佛法이 햇불처럼 섬 전체를 휘황하게 비추었다. 그는 또 法華寺를 중창하여 香火를 새롭게 하고저 지난 丙寅年 여름에 道月선사와 더불어 중창하는 일을 함께하니 그 功德이 恒河나 泰山보다 더 높아 붓으로 표현하기 어려운지라. 지난 戊寅年 5월 29일은 道月선사의 大祥이었는데 蓬慮觀 比丘尼가 이어서 入寂하니 이는 아마 법화사의 일을 마쳐 속세의 원을 이룬 뒤 입적한 것이 아니겠는가? 佛法의 샘이 고갈하고 智慧의 날이 어두웠기에 온 섬의 사람들이 슬퍼하면서 碑를 세워 그의 功德을 심으려 하니 利化스님을 나에 게 보내어 비명을 간청하기에³⁶⁾

34) 『晦明文集』, p.229

35) 『佛敎』 제32호, 1927. 2. 1.

36) 『濟州道漢拏山法華寺 尼師蓬慮觀碑銘並書』, 『晦明文集』

이회명은 안도월과 안봉려관의 비문을 작성하면서 그들의 업적을 조명하여 제주불교사에서 안도월과 안봉려관의 위상을 확립시킬 수 있었다. 이회명이 마지막으로 제주를 방문한 것은 1946년 81세의 고령의 나이였다. 이때 보살계법회를 집전하고 관음사에 머물러 마지막 족적을 남겼다.

이렇게 근대 제주불교의 중흥에 있어서 이회명이 끼친 영향은 매우 중대한 것이었다. 그는 안봉려관과 안도월 등이 마련해 놓은 토대위에서 적극적이며 근대적 포교활동으로 불교세를 확장시켰다. 그가 제주불교계에 미친 지대한 영향력은 그가 지닌 포교사로서의 재능과 경험, 교단내의 위상과 관련 있었을 것이다. 또한 그와 같이 영향력 있는 인물을 통해 제주불교의 중흥과 변화를 이끌려고 한 제주불교인의 전략도 작용했을 것이다.

이제 근대 제주불교사에서 이회명의 역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회명은 지역적 특성이 강한 제주불교계에 당대 조선불교의 보편적 신행문화를 소개하는 역할을 하였다. 안봉려관의 수행과정에서도 나타나듯이 1900년대 초 제주불교의 교세는 미미하였으며 무속과 습합되어 불교의 정통성이 훼손되어 있었다. 그러한 가운데 이회명의 입도와 활동은 불교의 정통성을 회복하고 교세를 회복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음이 분명하다. 1924년의 제주 관음사의 중창 낙성식 개최, 제주도 순회 포교, 1925년 계단의 설치, 신행단체의 조직 등은 제주도의 불교 의례와 행사를 변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이회명의 주도로 조직된 단체들의 의례와 기념일의 신행활동 등은 제주도내 미증유의 일로 대서특필 되었고 이후 제주불교에 파급되었다. 이회명의 불교 단체 조직화와 신행활동은 중앙에서 이루어지는 보편적 양식으로 근대적 포교방법에 의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회명은 당대 중앙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근대적 의례, 신행활동의 양식 등을 제주도에 소개하고 파급시키는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이회명의 활동은 제주사회에서 불교의 사회적 위상과 권위를 제고시켰다. 이회명이 주도한 제주불교협회는 법정사 항일운동이후 위축되었던 제주불교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 또한 제주사회의 지도급 인사들이 참여함으로써 제주불교계의 활동범위를 확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제주불교협회는 그 구성원의 성격상 식민지 문화통치 전략의 하나로 지원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제주불교협회의 한계로서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다.

셋째, 근대 제주불교의 역사에서 안봉려관의 역할과 위상을 뚜렷이 각인시켰

다. 이회명은 관음사와 관련된 기문에는 거의 빠짐없이 안봉려관을 언급하면서 불교가 사라졌던 제주에 불교의 씨앗을 받아시킨 인물로 평가하였다. 오늘날 근대 제주불교의 기틀을 다진 인물로 안봉려관에 대한 많은 조명이 이루어진 배경에는 이회명의 평가가 큰 역할을 하였다. 안봉려관에 대한 글을 비롯하여 이회명은 제주불교에 대한 다수의 글을 남겼다.³⁷⁾ 이러한 이회명의 기록이 근대 제주불교사 연구에서 중요한 기초 사료가 되고, 역사인식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V. 맺음말

이회명은 근대 불교교단의 중진으로서 다양한 각도의 조명이 필요한 인물이지만 지금까지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이 글에서는 이회명의 생애와 활동을 소개하고 이회명의 포교활동 가운데 제주도에서의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회명은 1900년대부터 포교사로서 명성을 쌓았으며 1920년대에는 한반도의 남북 오지를 누비며 유려한 설법으로 대중을 사로잡았다. 또한 불교단체 설립과 불교행사 개최 등 근대적 포교방법을 통해 불교에 낯설었던 대중들의 불교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었다. 이회명은 1920년대 제주불교계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이회명은 조선불교의 전통적 신행과 근대적 포교방법을 제주도에 소개하여 제주의 불교문화에 큰 자극을 주었다. 또한 제주불교의 사회적 위상과 권위를 제고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그의 제주불교에 대한 다수의 글들은 근대 제주불교 역사인식의 중요한 토대를 제공하였다.

이회명은 개화된 근대 불교인으로서, 지방의 불교교세를 진흥시킨 포교사로서, 불교사와 사찰의 역사에 정통한 승려이자 문장가로서 주목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근대 제주불교계 관련 인물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 근대 제주불교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 지속되길 기대한다.

37) 『晦明文集』에는 제주불교와 관련된 각종 발원문, 단체 취지서, 상량문, 모연문, 비명 등의 글이 15편, 시가 7편이 실려 있다.

부록 : 이희명 연보³⁸⁾

- 1866년 6월 15일 경기도 양주군 시둔면(유양면) 직동리 李寬錫公의 독자로 출생, 아명은 牛庚. 개국공신 靑海伯 襄烈公의 16대손. 부친의 휘는 寬錫, 후에 麟錫으로 改名. 字는 寅瑞. 모친은 水原 白氏로서 休庵 文敬公의 후예.
- 1868년 祖母柳氏가 손자의 장수를 기원하고자 도봉산 回龍寺에 가니 香山 노스님이 아이의 출가를 권유함.
- 1869년 모친 별세. 부친은 외지로 가고 牛庚의 보육은 祖母가 맡게됨.
- 1870년 외지에 나가있던 부친이 실종됨.
- 1871년 조모에게 漢學을 수학하기 시작
- 1874년 조모에게 論語와 孟子 배움. 그해 9월 조모 별세. 伯父에게 의탁
- 1875년 白樂洞의 亭舍를 왕래하면서 雲岷대감에게 사숙. 四書, 三經을 문답하며 어린 우경을 귀여워함. 원래 조모가 운현궁의 府大夫人과 친교가 있어 항상 牛庚을 데리고 궁저를 왕래했음.
- 1876년 양주군 노해면 학림암에서 寶河禪師에게 출가
- 1877년 寶河和尚을 魚長으로 모시고 常住권공, 靈山作拜, 豫修齋의 中禮, 가사 짓는 良工 배움. 서울 동대문밖 개운사에서 樂庵一佑 선사에게 사미계 수지, 사미명 日晷
- 1881년 4년 동안 서울의 동교와 서교를 돌아다니며 제장에 참여하여 불전에 권공과 가사양공 받들어 행하고 은사스님 시봉.
- 1882년 임오군란으로 서울 근교의 사찰이 피해입자 은사스님을 모시고 금강산 건봉사 普門庵에 안착. 건봉사 극락암이 허물어져 수선이 필요하자 金鼓所 설치하여 乞粒(불사를 위한 만든 가극단을 말함)에서 童子 使人역을 맡아 겨울 한철 逢場作戲함.
- 1883년 금강산 건봉사에서 荷隱 列柯 律師에게 비구계와 보살계 수지
서울 탑골 승방 머물면서 겨울 지나다가 12월에 건봉사로 돌아옴.
- 1884년 은사 보하스님 입적. 은사는 재산을 牛庚에게 물려주었으나 師兄들이 재산을 서로 차지하겠다고 싸움 일어남.
- 1887년 樂西庵 奉香의 소임을 사면하고 금강산 건봉사 普眼講院에서 晦光師兄 강하에서 四教科 가운데 능엄경, 기신론 공부

38) 연보는 『晦明文集』의 「禪師의 履歷」, 「晦明日昇大禪師年譜」와 『每日申報』 등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이다.

- 1888년 1월 건봉사 강원에서 般若經 공부함. 3월 도봉산 망월사에서 百日祈禱齋 봉행. 8월 신계사 보운암 대웅노스님 강하에서 원각경 배우고 반야경 독학.
- 1889년 보안강원 晦光師兄 강하에서 화엄경 三賢 공부. 4월 삼각산 道詵庵 石佛殿에서 백일기도 청첩을 받고 감. 기도 마치고 건봉사 상봉암으로 돌아와 삼현을 계속 공부. 치질로 고생하던 중 梵僧이 나타나 치료해주는 꿈을 꾸고 완치. 이때부터 스스로 號를 是夢生이라 함. 이름도 等文이라고 쳐 쓰고 兒名인 牛庚과 戒名인 定演은 이후 쓰지 않음.
- 1890년 양양군 明珠寺에서 一峰講師의 교수를 받아 대교과 중 玄談 공부
- 1891년 건봉사로 돌아와 震河강백의 강하에서 대교과 중 十地經 공부. 神貞王后 趙大妃의 國齋가 있어 上堂의 廳員이 되어 鍾頭의 次例를 받들어 행함. 국재를 회향하고 십지경 공부
- 1892년 건봉사 上房(書記)
- 1893년 1월 上房소임을 사임하고 普眼講院으로 옮겨 震河講伯 강하에서 대교과 졸업. 유점사 반야암에서 겨울철을 지냄.
- 1894년 계룡산 동학사에서 능엄경 섭렵. 瑞山 開心寺에서 龍潭和尚 강하에서 古文後集을 배움. 동학난으로 외지에 오래 머물 수 없게 되자 東學의 接主로 자임하여 동학을 권유하니 1천 여명이 가입함. 동학의 접주라는 이유로 데려가려 했으나 응변을 토하여 위기에서 벗어남.
9월 御使로 자칭하는 자가 건봉사에 나타나 소란을 일으킴. 이때 기지를 발휘하여 가짜 어사라는 것을 밝혀내고 소란을 진정시킴.
- 1895년 건봉사 만일회 동안거 설교사로 피임
- 1897년 新春에 대궐에서 至密尙宮이 □□사(본문에는 원흥사로 되어 있으나 원흥사의 창건은 1902년)를 찾아와 홍월초, 이보담, 강대련 화상에게 準提菩薩을 모셨냐고 물음. 뒷방에 있다가 나서서 건봉사 鳳巖庵에 모셨다고 말함. 이에 궁궐에 들어가 嚴妃를 만나게 됨. 엄비는 그 불상 전에 內帑 金으로 백일치성을 올리겠다고 함. 백일기도 후 엄비는 왕제자 생산. 상을 많이 내림. 구한국황제의 명으로 건봉사 鳳巖庵의 준제불상 개금불사의 화주로 봉행
- 1898년 불사와 단청불사의 명을 받고 봉행함.
- 1902년 경성 동대문 밖 원흥사 서무 2년간 피임. 경기도 화장사 동안거중 화엄경 全部 설교사로 피임. 金剛戒壇에서 비구계, 보살계 250인의 전계사 피임
- 1904년 경성 서대문구 봉원사 三冬설교사로 피임. 범회대중 모두 115인. 설교를

- 잘한다는 칭찬이 궤내에까지 알려져 旗幟, 輦과 3,300원 하사. 이것을 모두 건봉사에 納入
- 1905년 여름 은상좌 三住를 데리고 경성에 머물다 건봉사에 돌아옴. 전담 385두락과 엽전 43,214량을 건봉사 및 산내암자, 내외금강 사찰에 헌납
- 1906년 봄과 여름 경성에서 지냄. 7월 9일 일본 사찰 시찰
19일 부산 거쳐 경성 도착
- 1907년 불교연구회 내무부장 피임
- 1908년 3월 17일 佛敎宗務局 趣旨書 발기인중 13도 各寺總代
(『大韓每日申報』, 『皇城新聞』)
9월 9일 화계사 三聖庵 참예. 관세음보살 탕화 1축 모시고 삼각산 僧伽寺에 봉안
- 1909년 1월 건봉사에서 지냄, 4월 19일 해인사 머뭄, 12월 경성에 머뭄.
- 1910년 3월 17일 민영익대감의 慈堂인 貞敬夫人 回甲잔치를 名山에서 베풀겠다고 의뢰하기에 건봉사에서 7일기도 봉행하고 초파일 지내고 서울로 올라옴.
10월 19일 화계사에서 宮에서 받든 가사불사 행하고 證明壇 참예 경성 각황사 건축시 총무로 피임
11월 29일 박동 각황사에서는 各地의 僧史, 寺跡을 調査하여 編纂發刊할 計로 該寺 僧侶 徐海曇 李晦明 金玄菴 三氏로 편찬위원회를 선정함.(『每日申報』)
- 1911년 1월 19일 화계사 삼성암 淨土呪 7일 정진
10월 19일 흥국사에서 설교
11월 16일 華藏寺 尹府院君의 불사봉행 證明壇 참예
- 1913년 8월 21일 오후 7시 惠泉館. 인도 고승 達摩婆羅師의 入京을 환영하기 위하여 삼십본산 주지 대표로 건봉사 이회명 등 환영회 개최
(『每日申報』 8월 23일). 상좌 凌虛를 데리고 일본으로 감.
경성 각황사 華嚴山林 法會理務로 피임
10월 7일 건봉사에서 敎宗시험에 합격 大敎師위에 오름
- 1914년 1월 19일 건봉사 포교사 임명장 받음. 영명사에서 처음 설교
3월 28일 평안남도 불교자선회 만들.
10월 5일 대본산 영명사 주지로 피임
12월 27일 30본산주지 來社. 영명사 이회명 (『每日申報』)
- 1915년 1월 12일 불교진흥회에서 30본산주지 초대. 진흥회대표 陸軍參領 申羽均씨가 축사. 본산주지 대표 이회명이 답사(『每日申報』)

- 2월 30대본산 연합중앙포교당 설교사로 피임
 3월 7일 평양 장전리 유점사 포교당 설교사로 초대됨
 3월 19일 화장사에서 궁궐의 불사에 설교사로 초대
 4월 3일 佛教中央學林設立 30본산 연합사무소 監査員
 5월 평안도 대본산 法興寺 금강계단 傳戒師로 피임
 7월 2일 無遮大會 薦度式에 영명사 주지 이회명회상이 1백원을 기부(『每日申報』)
 7월 3일 미포에서 수륙제 개최(100원의 돈을 출선하여 내놓고 李王殿下와 各宮家에게 100원씩을 헌납받아 그 밖의 신도들도 동참 합계가 2400원)
 10월 20일 禪宗甲刹大本山 광주군 봉은사 禪院 會主로 취임
 10월 30일 개운사 冬期山林 會主로 초대. 화엄경 강연
 11월 경기도 고양군 신도면 홍국사 三冬 화엄경 설교사로 피임
 12월 22일 금강산 장안사의 姜龍船화상을 청하여 영명사 주지로 추천하고 서울로 옴
- 1916년 9월 4일-10일 佛教大講演會 경성에 있는 불교 각 포교당 주최로 연합 秋期大講演會 참여(『每日申報』)
- 1917년 고양군 홍국사 하안거 회주로 취임
 10월 대본산 봉은사 區域 玉泉寺 지정 포교사 피임
- 1918년 2월 대본산 건봉사 三世 주지에 당선되었으나 사절함
 5월 고양군 미타사 佛教專門講院 강사 피임
 12월 건봉사 주지 당선되었다는 편지 받았으나 공식 사절
 12월 20일 李太王殿下 승하하였다는 公文 발표. 이태왕전하의 위패를 설치하고 謁哭함.
- 1919년 1월 소요산 자재암 머무름
 2월 8일 고종황제 49재일 석왕사에서 봉행한다는 청첩와서 설교
 3월 강원도 사찰 순회. 6월 범사인 雙月禪師가 입적함.
 윤7월 함흥 도착 歡喜寺 참배. 직지사에 거울결제 會主로 안거
 12월 11일 해인사 승려총회 참석후 청암사를 거쳐 上京
- 1920년 1월 5일 석왕사 오백라한 성재에 참여
 1월 30일 청진항에 도착, 기차로 會寧禪寺에서 설법
- 1921년 9월 29일 제주도에 들어가 法華寺에서 冬安居 설법함
 10월 25일 목포로 나와 영암, 광주, 부안 거쳐 上京하여 신설동 탑사에서 설교

- 1922년 1월 정동교당에서 설교, 전주시 약수정에서 설교하고 상경함
 1월 20일 제주도 건너가 설교함
 2월 14일 정동 불교중앙포교소에서 佛敎大會 주최 제8차 불교강연회 개최.
 4월 7일 조선불교대회 개관식 이회명 화상 음두로 귀의삼보 삼창(『每日申報』)
 6월 10일 전주시에서 佛敎忠孝婦人會 설립
 6월 22일 금강산 건봉사 주지직에 임명되었으나 거절함
 7월 23일 조선불교대회 장곡천정 17번지 회관에서 봉불식 거행법사 이회명의 上供(『每日申報』)
 8월 12일 석왕사로 가서 문방도구 일체를 대중에게 보시함
 10월 10일 扶安포교당 봉불식에 證明
- 1923년 1월 4일 석왕사에 도착 5백 아라한 聖供에 참여
 1월 6일 凌虛 贊鍾 데리고 德源再醒庵에 이르러 7일 정진중 설교
 1월 25일 선운사에 도착
 10월 關北佛敎 青年會, 婦人會, 少年會 설립
- 1924년 2월 2일(?) 제주관음사의 佛事に 참여해 달라는 청을 받고 畫工 古文山, 金普應, 金鶴松 3인을 먼저 제주도로 보내고
 3월 17일 제주도에 들어가 佛事の 증단에 참석
 4월 8일 관음사 重創落成式 거행
 8월 8일 제주에 사는 法孫 吳利化가 마중하기 위해 上京
 11월 제주불교협회 조직함
 11월 3일 濟州城內 二徒里 1362번지 땅 516평을 매입. 安道月과 동행하여 대흥사로부터 일금 1천원과 범종 30근짜리를 회사받아 제주도 포교당으로 운반
 12월 목포를 거쳐 上京
- 1925년 2월 제주포교당 상량식 거행
 4월 全羅南道知事 장건식씨와 濟州道司 등이 설법을 청함
 5월 제주도내 순회포교함.
 제주포교당에 계단을 설치함. 수계자가 367인
- 1926년 1월 제주불교소녀단을 조직
 2월 安道月화상이 범화사를 증진함, 證師로 참여
- 1927년 8월 24일 불교협회와 관공서 연합으로 水陸천도제 거행
 12월 8일 서울 출발 대마도 들렀다가 부산 좌천동 燃燈寺 머무

- 1928년 1월 徐海曇 老師와 더불어 부산 燃燈寺에서 화엄경 설교
 3월 부산 공생원에서 강연
 4월 8일 성탄제일의 행사를 부산 자성대에서 행하고 법사로 설교
- 1929년 2월 목포교당에서 설교
 3월 석왕사에서 5백나한 100일기도 봉행
 6월 청진 문수암에서 계를 설함
 7월 두만강 건너 중국 龍井 普照寺에서 7일동안 설법함. 普照寺의 主人 金秉鐸을 教化하여 得度하니 불명은 敎善, 法號는 凌山
 용정시 밖의 佛日山에 普照寺를 창건
 8월 청진교당의 수록제 표백문 지음
 利原福興寺와 北靑普德庵 참배.
- 1930년 청진교당, 원산교당, 금강산 松林寺에서 설교. 강원도 通川 叢石亭에서 齋에 참석하여 설교. 금강산 마하연에서 과세
- 1931년 2월 영변 藥山東臺, 묘향산 상원사, 月精寺, 貝葉寺, 成佛寺 등지를 만행하며 설교함.
 10월 마하연에 들어가서 內金剛의 각 사찰의 沿革을 기록함
 正陽寺, 表訓寺, 楡岾寺, 普德窟, 철원 到彼岸寺, 도봉산 圓通寺 및 각 사찰의 事蹟을 집필.
 도봉산 圓通寺를 출발하여 평안도 价川을 거쳐 熙川江邊, 江界慈北寺, 江界포교당, 奉天臺, 牛南寺 경유
- 1932년 江界布敎堂, 중강진포교당 등에서 설교하다가 금강산 마하연에서 한철 보냄
- 1933년 金華山 寓居
 靑龍寺 沿革을 초하여 기록하고 洪祥根 비구니의 행장을 지음
- 1934년 8월 함경북도 어대진에 도착하여 觀音堂 창건하고 事蹟記 적음
- 1935년 금강산 佛地庵에서 萬日念佛會를 조직. 觀音禮文을 봉행함에 放光
- 1936년 2월 25일 開城安和寺에서 齋의 규약 게시
 4월 만주國 奉天市 조선불교 觀音寺의 성탄절에 表白하는 글을 지음
 5월 개풍군 진봉산 玉泉寺 연혁을 지음
 10월 평안북도 향적산 陽化寺 연혁을 지음
- 1937년 6월 한라산 관음사 安道月 화상의 비문을 지음. 三角山 奉國寺 秋潭스님 득도, 평양 영명사에서 琥山스님 득도
- 1938년 1월 함경북도 雄基港 大雄山 圓覺寺의 初創功德記를 지음
- 1939년 5월 개성 安和禪寺의 오백나한전의 上樑文을 지음

- 1941년 7월 만주 牧丹江城에 大興寺 護國禪院을 창건하면서 모연문 지음
 1월 인천시 藥水庵 탕화불사 점안식 봉행
 8월 咸鏡北道 朱乙에 포교당을 창건하면서 上樑文을 지음
 8월 한라산 觀音寺 法堂의 上樑文을 지음.
 장단군 도라산에 영수암을 창건하고 功德記를 지음
- 1942년 1월 10일 開城 日月寺 沿革 지음. 琑山스님에게 梵書를 전수함
 5월 15일 함경북도 회령에 있는 건봉사 포교당의 전등을 가설한 功德記를 지음
 8월 10일 海州 수양산 普光寺 大雄殿 上樑文을 지음
 8월 15일 觀海寺의 靈魂閣 創建記를 지음
 8월 25일 朱乙驛 앞 釋王寺 布教堂의 記文을 지음
- 1943년 5월 15일 開城 安和寺의 庭中塔 發願文을 지음
 7월 17일 제주 한라산 法華寺를 再建한 봉려관 比丘尼의 功德碑銘을 지음
 10월 7일 함북 朱乙에 있는 七星庵에서 山神閣의 創建記를 지음.
 10월 20일 開豊郡 嶺南面 玄化리에 있는 攄指寺에서 七星庵을 건축하면서 상량문 지음
- 1944년 함북 鏡城郡 漁大津邑의 석왕사 포교당을 이전하고 기문을 지음
- 1946년 제주 관음사에서 보살계를 봉행하고 관음사에 머무
- 1951년 12월 22일 세수 86세, 법납 75세. 全羅北道 任實郡 三溪面 三溪里 大圓庵에서 入寂

참고문헌

『每日申報』

『東亞日報』

『佛敎』

권태연 편역, 『晦明文集』, 여래, 1991.

김광식, 「제주 근대불교의 전개와 성격」, 『민족불교의 이상과 현실』, 도피안사, 2007.

_____, 「법정사 항일운동의 연구, 회고와 전망」, 『정토학연구』 11, 2008.

_____, 「제주 근대불교의 민족운동 재인식」, 『불교학보』 89, 2019.

김종진, 「근대 불교가사 창작의 한 흐름-회명 일승의 가사자료 소개를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43, 2012.

오 성, 「근대 제주불교의 태동과 관음사 창건」, 『대각사상』 9, 2006.

제주불교사연구회, 『근대제주불교사 자료집』, 제주불교사연구회, 2002.

한금순, 『근대 제주불교사 연구』,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_____, 『한국근대 제주불교사』, 탐라문화연구소, 2013.

Abstract

Lee Hoe-myeong(1866-1951) and Modern Jeju Buddhism

Lee, Kyung-soon
(National Museum of Korean Contemporary History)

Lee Hoe-myeong has not been noticed until now, even though h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modern Korean Buddhist order. He gained great reputation as a missionary from the early 1900s to the 1920s, and played a decisive role in reviving the weak Buddhist community in the southern and northern parts of the Korean Peninsula. This article examines the activities of Lee Hoe-myeong in Jeju in the 1920s.

Lee Hoe-myeong resonated greatly with the Buddhist community in Jeju in the 1920s. He introduced the traditional practices of Joseon Buddhism and modern missionary project to Jeju Island, thereby transforming the Buddhist culture of Jeju. It also played a major role in enhancing the social status and authority of Jeju Buddhism. Many of his writings on Jeju Buddhism provided an important foundation for modern Buddhist historical awareness.

Lee Hoe-myeong is a figure whose status should be noted in Jeju Buddhist history. In addition, as a modern Buddhist, a missionary with extensive activities, and a writer with Buddhist history and temple history, research is needed.

Key words

Lee Hoe-myung, Jeju Buddhist Association, Modern Jeju Buddhism, Jeju Buddhism, Hwaimyeongmunjip, Anbongryugwan

논문투고일 : '21. 04. 30. 심사완료일 : '21. 05. 25. 게재확정일 : '21. 05. 25.